폐허의 울음소리

김서연

김포 용두리 마을
작은아들 내외의 배려로
저수지 방갈로에 짐을 풀고
동네 한 바퀴 산책길에 나섰다

산자락에 둘러앉은 풍경은
내 고향 옛 마을
해 밝은 산중턱엔
초가 아닌 현대식 가옥들

어~어~ 저 집들은
눈에 꽂히는 폐허 스레트 지붕

그 예전, 두레밥상 도란도란
자녀들의 꿈을 키워
결혼시켰을 저 흔적들

세월의 수레바퀴 잡풀만 무성하다
가난했던 그 시절
명당도 풍수지리도 무시한 채
살기위해 세웠을 뼈대
낮고 그늘진 삶의 터전

마당가득
주인 찾는 풀들의 울음소리
봄날 꽃바람도 스산하니 머리 젖는다.

김서연
등단 2004년 월간 '순수문학'
시집 '노을 지는 언덕에서', '이런 행복도'
수상 순수문학상